

세상에는 네가지의 일이 있다고 하죠.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 해야 하는 일, 하면 안되는 일. 이렇게 말입니다. 평생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보통 하기 싫은 일은요, 대부분 꼭 해야 할 일인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평생에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기도예요! 오늘 시편 116편에 보면, 다윗은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기관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본적이 있는데, 자기 기도생활에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는 성도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기도가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이고 기도 때문에 갈등하는 부분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보다, 기도를 못해서 마음에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하고 싶은 일, 기도…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식사기도 빠뜨리지 않고 하겠다는 정도가 아니죠. “기도” 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자체로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는데, 다윗 스스로가 기도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평생토록 이 귀한 것을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94세 평생을 시각 장애로 살면서 참으로 많은 찬양과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크로스비 Fanny Crosby 여사에 찬송시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뻐까” 기도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으로 비유했죠. 기도하는 순간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없었던 크로스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뵈었기에 친근하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주님의 얼굴을 친근하게 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은 그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취했고, 이를 피해 도망가

는 처량한 신세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자녀들 중에서 가장 괜찮다고 여겼던 아들이 결국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차라리 죽는편이 낫겠다는 맘이 없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처량함과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이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호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다윗의 삶을 보면 상황이 좋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구요, 오히려 상황이 안좋은데도 찬양하는 다윗을 봐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뭔가요? “내가 다윗이었다면, 나는 과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부르셨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중요한 사역 마다 직접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을 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속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상당히 큼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많은 에너지를 돈을 잘 벌기 위해 쓰구요, 또 돈을 잘 쓰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각분야마다 상당히 전문화된 사회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뭔가 제대로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고도의 정보와 지식도 지속적으로 습득해야만 하죠.

또 우리들의 정서를 위해서 문화 예술 생활도 필수적이죠. 자기만의 취미라든지 레저 생활도 빠질 수 없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 모습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충족이 안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한거예요.) 이 바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다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웬지 기도없이 웬만한 것들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요. 해서, “기도는 다음에 하지 뭐! 내일하면 되지!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구요, 기도없이 아무것도 해서는 안된다는 걸 일깨워 줍니다. 쉬지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롬

12:12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대한 우선 순위가 있다는거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항상 등장하는 성경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구절을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You give God first place in your life.”

여러분의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인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 이 욕망의 세상에서 정처없이 지내지 않고, 세상 것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성경말씀은 다윗이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체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지속적인 인격적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에 대한 것임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어떤지 묻고 있는 지표예요.

<존비버의 임재>라는 책에 보면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챕터가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quote) 나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곤 했다. “존, 나의 계명을 지키므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 보여라.” 때문에 이 말씀은 나에게 또 하나의 율법이 되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날, 주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다시 읽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또 읽었지만 주님은 재차 “네가 이 말씀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다시 읽어 보아라.” 고 하셨다. 그렇게 10번쯤 읽은 뒤에야 나는 “주님, 저의 무지를 용서해주소서. 이 말씀의 참된 뜻을 제게 알려 주소서.” 라고 고백했다.

주님은 나의 간절함에 이렇게 대답하셨다. “존, 이 구절의 뜻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네가 나

를 사랑하는 것이 증명된다는 게 아니다. 이것은 네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단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보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지키지도 못할 서원과 약속만 남발해 놓고 그 부담감에 눌러 발버둥치다가 급기야 탈진해버린 적은 없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계명이 아니라 관계를 중요시하신다. 규칙이나 통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또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을 단순한 축복 공식으로 축소시킬 수도 없다.

(중략)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련의 규칙이나 규제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음의 여정’이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자녀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 원하신다. 이런 친밀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한,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이젠 시들시들해져 가는가?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 떨리던 시절이 지나고 어느새 데면데면한 사이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관계없이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End quote.)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걸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꼭 해야하는데 안하고, 나에게, 나의 영혼에게 정작 꼭 필요한 기도를 우리가 놓친다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가 바빠서 기도 못하거나 안할 때가 많고, 막상 기도할 때는 정작 꼭! 해야하는 중요한 내용은 빠뜨리고, 헛된 것을 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뭘 아십니까?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시

간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26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다윗은 말하길 기도는 사랑의 문제라고 했어요. 대단하고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기도, 사랑이 담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 놓고 꾸준히 기도하세요! 다윗이 다윗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평생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도 마땅히 빌바를 잘 알지 못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주도 이 은혜로 승리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